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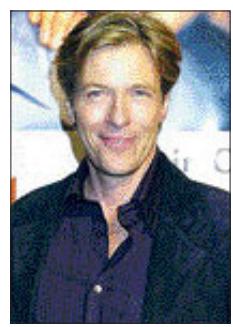
한국 '록의 대부' 신중현 '록 본고장' 美시 집중조명

미국 언론이 은퇴 공연 투어를 시작한 '한국 르의 대부' 신중현(66)을 조명했다.

미국의 유력 경제신문인 월스트리트저널 온라인판은 13일(현지시간)에 'The Godfather of Korean Rock(한국 르의 대부)'라는 타이틀로 은퇴를 앞둔 신중현에 대한 기사를 실었다. 빌보드지, 뉴스위크 등 미국 언론에 한국 대중문화에 관한 기사를 쓰고 있는 한국 통신원인 마크 러셀(Mark Russell)은 "서울 외곽에 새 집을 짓고 있는 노장 신중현은 조용한 은퇴를 앞두고 있다"며 "그는 1960~70년대 한국인들에게 로큰롤을 소개한 우상"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전 세계 음악 팬들의 사랑을 받은 지미 헨드릭스와 제퍼슨 애플리언의 영향을 받은 곡들을 발표하며 이들의 가치를 널리 알렸다"고 그가 한국 르의 뿌리임을 강조했다.

배우 잭 와그너, 골프대회 '깜짝우승'



미국 배우 잭 와그너가 유명인사들이 참가하는 골프대회 아메리칸 센추리 셀러 브리티 핵피언십에서 깜짝 우승을 차지했다.

드라마 '종합병원(General Hospital)'으로 국내에서도 잘 알려진 와그너는 17일(한국시간) 미국 네바다주 레이크 타호골프장에서 스테이블포드 방식으로 열린 대회에서 70점을 따내 미국프로풋볼(NFL) 워터백 출신 빌리 조풀리버를 1점차로 제쳤다.

와그너는 또 비(非) 스포츠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이 대회에서 우승하는 기록도 세웠다.



미 최고 갑부 정치인 2위 록펠러 2세 태계

미국 경제지 포브스에 의해 미국 최고 갑부 정치인 2위로 기록됐던 윈스럽 록펠러 2세 아칸소 주지사가 16일(현지시간) 혈액질환으로 숨졌다고 AP통신이 전했다. 향년 57세.

그는 스탠더드 오일 창업자 존 록펠러의 증손자로, 지난해 재산 12억달러로 포브스지 미국 최고갑부 283위에 기록됐었다.

그의 아버지 윈스럽 록펠러는 1960년대 2차례 아칸소 주지사를 지냈으나 1973년 60세의 나이에 암으로 숨졌다.

윈스럽 록펠러 2세는 아칸소 주지사를 2차례 지내 연임이 어려움에 따라 지난해 아칸소 주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했으나 자신의 질병에 진단된 후 포기했다.

윈스럽 록펠러 2세는 부지사 때 연봉 3만3천673달러는 자선 단체에 기부했으며, 자신의 돈으로 외국을 돌아다니며 외국인 투자 유치활동을 벌였다.

그는 또 문맹퇴치 운동을 지원했으며, 자녀 8남매 가운데 2명이 딴운동후군을 앓고 있는 점 때문에 학습장애에 있는 어린이를 위한 학교를 세우기도 하는 등 여러 사회 복지와 자연 보호 운동에 기여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무료로 실어 드립니다. People@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70-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62) 2200-634 FAX (062) 222-4938, 222-4918

화촉

▲나상우(전남도 교육청 행정과장)씨 장남 석환(김앤장 법률사무소)군 송기만씨 장녀 소운양=22일(토) 오후 2시 오프라하우스.

▲김중기씨 아들 용운군 채수삼 씨 딸 원경양=22일(토) 오후 1시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 2층 그랜드볼룸.

알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인권상담=월~금 오전9시~오후5시, 국번 없이 1331

▲변호사 공재원 법률사무소 토요 무료법률상담=매주 토요일 오전9시~오후1시 사무실 223-2100

▲비둘기기정폭력상담소 무료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등

각종 상담, 직접 상담은 전화나 메일로 사전예약 매주 목·금요일, 652-1366, nam939@dreamwiz.com

▲(사)이주가족복지회 긴급지원 및 상담=동남아 결혼이민자나 가족들 대상으로 상담 및 문화강좌. 363-2963, www.ejufamily.com 문화강좌는 월·금 오전 10시~낮 12시, 수 오전 10시~오후 3시(점심 제공)

동창·동문회

▲광교 제 18회 동창회(회장 오경교) 월례회=18일(화) 오후 6시30분 삼희별관 상무점, 376-3233

▲복성중 18회 동창회(회장 노시혁) 월례회=18일(화) 오후 7시 남구 보양동, 674-1835

▲복성중 제 15회 동창회(회장 박의재) 월례회=18일(화) 오후 6시30분 삼희식당, 376-3233

■ 해남 옥천면 흑천마을 부녀회장 된 이주 일본인 유우코씨

집안·마을 대소사 척척 “나도 한국 아줌마”

"아줌마, 오늘 마을 회의 있는 줄 알죠? 밟매느라 바빠도 꼭 나오세요"

해남군 옥천면 흑천마을의 소메야 유우코(38)씨는 국제 결혼으로 해남으로 이주해 살고 있는 부녀회장이다.

임경진씨와 국제결혼 10년째

"안녕하세요," 저는 유우코입니다."라는 두 마디의 말만 의인 채 남편 임경진(38)씨를 따라 시집과 이곳에서 생활한 지 10년째. 어설프지만 구성진 전라도 사투리도 구사할 줄 안다. 동네 일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시어머니·시동생과 자녀(3명)까지 7명의 대가족을 행기며 열심히 사는 모습에 주민들도 빙했다.

마을 부녀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긴 것도 이 때문이다. 그것도 만장 일치로 추대됐다.

'농촌 총각 장가 보내기 사업' 등으로 이주 외국 여성이 크게 늘고 있지만 이처럼 마을 중

책을 맡기는 유우코씨가 국내 처음이다.

살아온 문화가 다른데 처음부터 잘 할 수 있을까 많이 망설였다는 유우코씨는 "주민들이 많이 도와줘 마을 일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면서 "홀로사는 노인들이 많고 주민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제법 많아 보람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말도 통하지 않고 생활습관도 너무 달라 지난 10년 동안 새로운 것과 익숙해지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했다고 했다.

그녀는 "직접 한글을 가르쳐 주며 든든한 외조를 해 준 친척의 남편과 음식 손맛을 전수하는 것에서부터 마을 대소사까지 머느리를 대동하며 해남사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와준 시어머니가 있었기에 오늘날 있었다"는 그녀는 "주민들을 위해 혼신봉사 하겠다"고 말했다.



한 해 보리 수확만 500가마에 이르는 대농

사 일을 척척 거드는 그녀는 부지런함에 이제

는 동네 사람들도 인정하는 '한국인'이 됐다.

/해남=박정옥기자 jopark@kwangju.co.kr

“탁기 다스리고 중화… 명상이 최고”

<나쁜 기운>

명상 지도사로 나선 50대 약사 하규씨



서양의학과 동양의 선(仙)문화 접목을 모색하며 명상의 대중화에 힘쓰는 약사가 있다. 서울 장위동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하규(51)씨가 주인공.

허씨는 본업과는 별도로 현재 서울 인사동의 선문화연구원(www.seon-culture.org)에서 고문으로 있으면서서 명상 지도사로 활동하고 있다.

허씨는 이 곳에서 스트레스의 발생 원인과 해소방법, 명상의 효과 등을 소개하며 체계적 명상을 가르치고 있다.

허씨가 명상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서양의학으로는 고치기 힘든 불치병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10여 년 전 동양의 대체의학으로 눈을 돌리면서부터다.

허씨는 "사실 인간의 몸은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경우가 많은데, 시간과 여

동양의학을 공부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명상이 라든지, 기(氣)라든지, 단전호흡 등으로 시선을 두게 됐다고 한다.

허씨는 "최근 서양의학에서 '활성산소'를 통제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를 집중하고 있는데, 이 활성산소가 동양의학에서 말하는 나쁜 기운, 이른바 '탁기'(濁氣)에 해당한다"며 "탁기를 다스리고 중화시키는 길 중에 명상 만한 것이 없다"고 말한다.

특히 우리나라 전래의 호흡법 만큼 신뢰할 만한 명상법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

허씨는 "사실 인간의 몸은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경우가 많은데, 시간과 여

유를 갖지 못하고, 육심을 부리느라 몸을 망치게 되는 것"이라며 "하루에 한 시간 정도 명상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기회만 가져도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허씨는 모든 진리는 뻔한데 실천하기 어려울 때마다 말한다고 말한다.

“소외이웃 위한 참봉사 실현에 최선”

강문일 순천 비봉로타리클럽 17대 회장



"지역을 위해 뛸 수 있는 모든 곳에

로타리 정신을 앞장서 펼쳐겠습니다"

강문일(53) 국제로타리 3610지구

제 17대 순천비봉로타리클럽 회장은

최근 로얄호텔 별관에서 유관기관 단체장을 비롯한 로타리 가족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갖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발휘해

지역사회와의 참여와 봉사에 가장 유효

이 될 수 있는 명문들로부터 이름을 드

높일 수 있도록 힘찬 행보를 시작하겠

다"고 포부를 밝혔다.

강 회장은 "로타리인이 된 초심의

마음으로 지역 어두운 곳에서 소외되고 있는 이웃들을 위한 사랑봉사는 물론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곳에 항상 서 있겠습니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특히 "회원 모두가 뛰어난 한마음을 바탕으로 지역의 참봉사 실현에 최선을 다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미옥여사와의 사이에 2남을 두고 있으며 취미는 등산.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연말까지 회원 2만명으로 성장시킬 것”

강종우 우민회 전남도지부장



"회원 상호간의 친목, 대민 봉사를 통해 사회적인 관심사에 대한 참여와 회원 배가운동을 펼쳐 전남우민회가 전국 최고의 우민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5일 나주 재향군인회관에서 열린 우민(고건 아호) 회전남도지부장 선거에서 선출된 강종우(45) 지부장은 전남 16개 지회 4천명의 회원을 올연말까지 2만명을 목표로 전국에서 제일가는 우민회로 성장시키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 지부장은 또 "참여와 봉사가 잘

이루어져야 발전이 있다"고 강조하며 "발로 뛰는 우민회"와 "참여하는 우민회"가 되도록 말로하는 봉사자가 아니라 실천에 옮기는 봉사자가 되겠다고 했다.

한편, 강지부장은 순천출신으로 14명의 선거위원이 모여 전원 만장일치로 제3기 우민회를 이끌 전남도지부장에 유임됐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유럽 악기제작 콩쿠르’ 한국인 첫 입상

현악기 제작자 김성철씨

한국인이 유럽의 악기 제작 콩쿠르에서 최초로 입상, 화제다.

2004년부터 하노버에서 현악기 제작을 하고 있는 김성철(37)씨는 지난 5월8일부터 13일까지 개최된 제11회 비에나프스키 악기 제작 콩쿠르에서 바이올린 부문에 한국인 최초로 입상했다.

국내에는 바이올린 연주 콩쿠르

로 유명한 이 대회는 1935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처음 개최되었으며

1957년부터는 5년에 한 번씩 악기 제작 콩쿠르를 병행하고 있다.

비에나프스키 콩쿠르의 경우 1차

으로 블라인드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 악기들은 비밀번호를 달아서

제출되며 이를 가지고 심사위원들

은 악기 소리, 나무제작 과정, 정교

함, 색깔, 과거 명기들의 모방수준

을 평가한다.



모집

▲한마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 보조인 모집=북구 운남동 체험 훈련에서 생활하는 중증장애인 2명을 위한 활동보조인 모집. 오전 7시~9시(시간 조정 가능). 문의 431-8025, 010-9881-1276

▲화훼장식 국비교육생 모집=40세이상, 매월